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함께하는 금융, 함께하는 나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충북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자 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총총한 금융보증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후원은 물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나눔 봉사단'을 통해 연탄 나눔, 장애인복지관 활동 지원, 지역 현안 캠페인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도민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자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이번 호에서는 김창순 이사장을 만나 재단의 상생 철학과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크게 기부, 봉사활동, 캠페인 등 세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부 활동으로는 충북 전역의 11개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물품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봉사 부문에서는 자체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내부 입구.

'기부·봉사·캠페인'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공헌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나눔 봉사단' 이웃사랑 실천

발족한 '행복나눔 봉사단'을 통해 연탄 배달, 장애인복지관 활동 지원 등 정기적인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지속성'과 '실효성'이다.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의 실질적인 고민과 필요가 무엇인지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다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면서, 단순히 금융만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따뜻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할 수 있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나눔과 봉사의 가치가 재단의 조직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만큼 임직원의 참여시

간 확보와 지속적인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공헌을 기관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소감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에 대한 격려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임직원 모두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금융지원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금융지원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를 사회공헌으로 환원하며,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용한 당선인, '충북형 통합돌봄' 등 복지 시동

가사부담 경감·장애인이동권 및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용 등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충북 주도성장' 비전과 함께 총총한 복지정책 추진에 나선다. 신 당선인은 돌봄, 의료, 응급안전망,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는 '충북형 돌봄 모델' 구축이 꼽힌다. 이는 출산과 양육, 노인 돌봄 등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도민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1인 가구 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노동자를 위한 포용적 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친화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동노동자를 위한 권역별 쉼터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산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방 인력 확대 및 응급구조사 처우 개선을 통해 구조·구급 역량을 보장한다. 특히 119구급대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통합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충북형 AI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도입해 응급환자의 끝없는 이송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처우 개선 정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 당선인은 앞서 충북사회복지단체연대의 정책 질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용 의견을 부분 수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시설 직능단체 역량 강화와 교육 교직원 처우 개선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다수의 복지 공약이 향후 도 재정 여건과 조례 제정,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규모가 조율될 예정인 만큼, 민선 9기 도정 운영계획과 공약 실천계획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5일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도민의 생각이 곧 충북의 미래입니다"

신용한 당선인, 도민 200여 명과 도정 의견 교환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충북도의회 다목적강당에서 신용한 당선인과 각계각층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제·산업, 복지, 문화, 교육, 농업, 환경,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별 원탁토론에 참여해 충북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창업특별도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제조업의

AI(인공지능) 전환,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공의료 강화,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용한 당선인은 "도민의 삶에서 나온 정책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며 "제안된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공약 실행계획과 도정 과제에 반영하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물품을 기부하고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인근 지역의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가정위탁 사랑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가족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

위탁부모가 되려면?

- 1)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
- 2)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 3)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NO
- 4) 친자녀수 4명 이하
- 5)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이수

위탁부모 신청 절차는?

- 1) 가정위탁 신청 및 접수
- ↓
- 2) 예비위탁 부모교육 수료
- ↓
- 3) 예비위탁가정 상담 및 방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합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043-250-1226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정식 개원

응급실·수술실·입원실 본격 가동... 13개 진료 과목

음성군은 국립소방병원이 단계적 시범진료를 마무리하고 이달 8일부터 응급실·수술실·입원실 운영과 함께 13개 외래 진료과목 진료를 시작하며 정식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은 외래 중심의 시범운영 단계를 마치고 종합 의료체제로 전환해 응급·수술·입원 기능을 포함한 핵심 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국립소방병원은 내과, 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총 13개 외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다.

이와 함께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실을 본격 운영하며, 직업환경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4개 진료지원과목도 함께 운영한다.

응급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진료 예약은 전화(☎1670-0119)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의료진과 요일별 진료 일정은 국립소방병원 공식 홈페이지(www.nfh.or.kr)에서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전국 62개 지자체가 참여한 유지 경쟁에서 국토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음성군의 적극적인 유지 의지, 정주 여건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후보지 가운데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최종 유지됐다.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소방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원 준비를 추진해 왔다.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 9454㎡ 규모에 302병상을 갖췄으며, 입원실과 수술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등을 포함한 19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전경.

개 진료과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 시범진료를 통해 진료 및 운영체계를 점검해 왔다.

이번 정식 개원을 통해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현장에서 화상과 외상, 근골격계 손상, 정신적 충격 등 복합적인 건강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 의료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도 응급·수술·입원 기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필

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 기반 확충은 물론 중부권 의료 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응급실·수술실·입원실 운영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역 주민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의료 분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 노인복지·여가 공간 대폭 확충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국·도비 12억원 확보

진천군은 덕산읍에 조성하는 '진천군노인복지관 분관 및 대한노인회 덕산읍분회 이전 설치사업'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덕산읍 용문로96 일원의 기존 요양원 시설과 부지(4610㎡), 건축 연면적(1338.34㎡)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노인복지관 분관과 대한노인회 덕산읍분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총사업비 77억 5000만원 전액을 군비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약 12억원을 확보하면서 군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새로 조성되는 시설은 1층에 대한노인회 덕산읍분회 사무실과 경로당, 식당이 들어서며, 2~3층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들어선다.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강당, 정보화교육실 등을 갖춰 다양한 복

지·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20~30% 이상 향상할 계획이다.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를 적용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줄여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내 환경을 개선해 호흡기 질환 예방 등 이용자의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군은 이달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용을 반영한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시설 준공과 기관 이전은 2027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남현 진천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수준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임산부 580명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연간 24만원 상당 안전 먹거리... 자부담 20%

충주시는 이달 17일부터 7월 6일까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충주에 주소를 둔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나

농식품바우처 등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올해는 580명을 지원하며,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 받는다.

국비 40%와 지방비 40%를 지원으로 해 대상자는 총액의 20%인 4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꾸러미는 유기농·무농약 농산물과 과일, 유기가공식품, 한우·

돼지고기·유정란 등 무항생제 축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 온라인 통합몰을 통해 월 1회 이상 집으로 직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에코이몰'(www.eco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와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다. 또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원 초과 시 추첨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 임산부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 94억 투입

청년기업 입주·로컬창업타운 조성... 지역거점 기대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내부 전경.

청주시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8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센터 내 문화소극장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김종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청주시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장, 청소년참여위원, 청년·청소년 시설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10개

청년기업을 비롯해 청소년 공간과 시민을 위한 문화·휴게공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로컬창업타운'이 함께 조성됐다.

앞으로 청년과 청소년,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 창업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당구 사적대로 347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됐다.

2024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10월 본공사에 착공해 올해 5월 말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94억 7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이날 개관을 계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 개관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휴관은 매주 월요일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돕고, 로컬창업타운과 연계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창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관계없이 이용... 친정어머니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제천시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방문해 산생아 목욕과 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산모가 가정에서 보다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이다.

충청북도가 예외 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로 등록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신청자는 2024년 268명에서 2025년 289명으로 7.8% 증가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제천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는 사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해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43-641-3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군 '나도 요리사' 6곳 확대 운영

남성 어르신 건강과 자립 지원하는 맞춤형 요리교실



단양군 어르신들이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해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나도 요리사' 남성 요리교실을 올해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군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어

르신들의 식생활 자립과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임천1리를 시작으로 단성면 중방2리, 매포읍 평동8리, 소아리 경로당에서 순차적으로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추가 2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선착순 모집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주관으로 경로당별 주 1회,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어르신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밑반찬과 국물 요리 등 실용적인 조리법을 배우며 자립적인 식생활 역량을 키운다.

모집과 문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043-420-6060) 또는 단양군청 노인복지팀(☎043-420-2136)으로 하면 된다.

단양군은 앞으로도 고령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구성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유니버설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 043-234-0840~2

월 519만원 벌어도 노령연금 안 깎인다

기준 200만원 상향... 지난해 감액분 평균 60만원 환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높이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올해 기준 319만 3511원이다.

이에 따라 은퇴 후 근로·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일부 줄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감액 기준은 기존보다 200만원 높아졌다.

올해 기준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도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매달 약 4만 5500원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월 소득이 308만 9062원(2025년 A값)을 초과하고 508만 9062원 미만이어서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445억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진행된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사업소득자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 환급받을 예정이다.

올해 소득분부터는 이미 새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신고 소득이 월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이 중단된 상태다. 이는 먼저 연금을 감액한 뒤 환급하는 불편을 줄이고, 수급자가 처음부터 연금을 온전히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5월 기준 약 9만 명이 총 195억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5만원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든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주거 개선 지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생활편의 향상 13개 품목 설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낙상 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낙상은 고령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 위험

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다.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

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과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13개 품목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사

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부모가 온라인 발급한다

서류 발급 간소화... 행정복지센터 방문부담 줄여
생체인증 결제 확대·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비롯해 생체인증 결제 확대, 시설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등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우선 미성년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

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에 없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비대면 결제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에서는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바우처 이용 시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생체인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보호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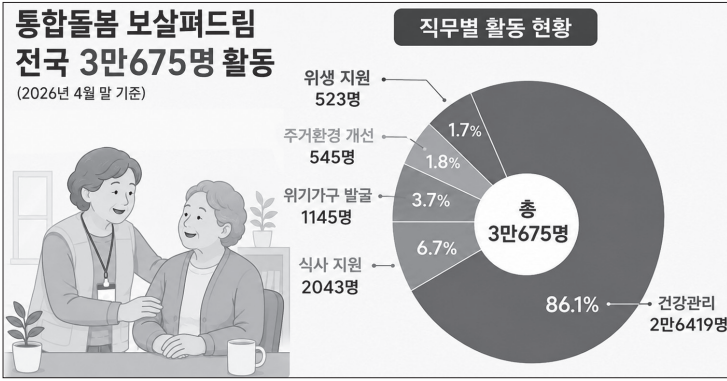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복지시설명이 표시되지 않아 학교나 금융기관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설

입소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국민투표를 보건복지부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사업 직무별 활동 현황.

건강관리·병원동행·식사 지원 등 5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통합돌봄 보살펴드림)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운영한 결과, 4월 말 기

준으로 전국 3만 675명의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한 이웃 어르신을 직접 살피고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활동을 직무별로 보면 건강관리가 2만 6419명(8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사 지원 2043명(6.7%), 위기가구 발굴 1145명(3.7%), 주거환경 개선 545명(1.8%), 위생 지원 523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 복약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 복지부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돌봄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무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행기관 평가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 제공기관 총 463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

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하여 모집했다. 먼저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

지 확대하였으며, 인력 기준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인력 2배 증원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체계 개선 내용.

97명 채용... 야간 민간 연계·긴급구조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상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번

호 시행 이후 상담전화는 전년보다 46%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하루 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하루 최대 응대 가능 건수는 580건으로 실제 응대는 평균 532건에 그쳐 응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추가 인력 97명을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해 상담인력을 200명으로 확대한다.

민간 자원도 적극 활용한다. 야간 시간대에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7월부터는 통화 대기 중인 내담자의 위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신속 응대 전담팀을 운영한다.

상담인력 처우도 개선한다.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고 상담사 정서 소진 방지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 의학연구소(KMI)가 지정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담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솔루션도 도입해 오는 11월부터 AI를 현장에 적용해 상담기록 관리와 사례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모금회, 취약계층 나눔 속도 높인다

광역푸드뱅크 지게차 지원
후원물품 신속 수령·전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도내 복지대상자들에게 후원물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충북광역푸드뱅크(회장 유응모) 물류센터에 입식식 지게차 1대를 지원했다.

지게차 전달식은 8일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서 이민성 충북모금회 회장과 유응모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 당시 대량 화물 하역을 위한 2.5톤 좌승식 지게차를 지원한 데 이은 후속 지원이다.

충북모금회는 도내 전역에서 답지하는 후원물품을 신속하게 수령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보



충북모금회는 8일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 4300만원 상당의 입식식 지게차를 전달했다.

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전달된 장비는 4300만원 상당의 1.5톤 입식식 지게차로, 좁은 창고 내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 물품 적재와 출고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으로 기탁된 식품과 생필품이 창고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시·군 기초푸드뱅크를 통한 도내 취약계층 전달도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유응모 회장은 “지난해 좌승식 지게차에 이어 현장에 꼭 필요한 입식식 지게차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준 충북모금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물류센터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성 회장은 “이번 지게차 지원은 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후원물품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민 헌혈의 날 기념식

충북도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은 '충북도민 헌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충북도민 헌혈의 날 동참해 주세요”

충북혈액원-도, 기념식 개최
내달 18일까지 릴레이 캠페인

충북도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원장 임근빈)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민 헌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법정 기념일인 '세계 헌혈자의 날'(6월 14일)을

기념하고 도내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청 관계자와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임근빈 충북혈액원장, 헌혈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도와 충북혈액원은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31일간 '집중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하절기 휴가·방학 및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근빈 충북혈액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에 건강한 헌혈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충북도,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
학대예방 교육, 존중문화 확산

충북도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경찰청은 12일 청주시 성안길 일대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거리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기념일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 인권 보



충북도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거리 연합 캠페인을 진행했다.

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충북도는 그간 도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동상담, 노인학대 인식개선 사진전 등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10주년을 맞아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7월 15일까지 북부·남부

권역별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존중 문화 확산과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인 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노인학대 예방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되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주배경아동 ‘화합의 장’

어린이날 맞이 소통 확대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태순)은 지난달 31일 봉명초등학교에서 CIP고려인연합(대표 한알렉세이)과 함께 러시아어권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민 가족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러시아어권 이주배경아동과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린이날을 함께 즐기고,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주민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CIP고려인연합이 공동 개최한 어린이날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체험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당사와 단체인 CIP고려인연합과 지역복지기관인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해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당일에는 이주민 관련 단체와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22개 체험부스가 운영

됐다.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빛가운데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충북 저출생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인구보건복지협 충북세종지회
인식 개선·홍보 강화 등 논의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지회장 조경순)는 15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충북 저출생 대응 지역연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충북 저출생 대응 지역연대는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 협력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15일 충북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충북 저출생 대응 지역연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체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협력체

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충청북도 인구

청년정책과를 비롯해 청주공영센터, 청주상공회의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 HCN충북방송 등 지역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기관별 추진사업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 현황과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과 공동 홍보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저출생 대응 정책 홍보 강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어르신이 들려주는 양성평등 이야기

청주시노인복지관, 공연 펼쳐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나정흠)은 5일 그림책정원1937에서 지역 아동 대상 양성평등 그림책 읽기와 환경보호 동극공연을 진행했다. 해당 활동은 지난 5월 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 도서관 및 어린이집 등에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충청북도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시니어 양성평등 활동가’ 사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하하호호 동극단’이 합

께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림책정원1937, 기적의도서관, 상당도서관 및 지역 어린이집 등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책 읽기와 동극 공연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양성평등 그림책 ‘좋아하는 색은 저마다 달라요!’는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을 소재로 서로 다름과 개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어 진행된 환경보호 동극 공연 ‘용왕님의 바다지킴이 대작전’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일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그림책 읽기와 환경보호 동극공연을 진행했다.

며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정흠 관장은 “앞으로도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043w.or.kr

충북복지넷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맞춤복지서비스찾기

SSN 교육

바로가기

복지정보·연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특례시 시대를 준비하는 청주 복지의 새로운 길

2026년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좌담회

특례시 시대의 협의회 역할과 미래과제 논의 정책 제안부터 현장 지원까지, 발전방향 모색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희) 부설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순희)는 지난 12일 덕빌나눔허브센터에서 '청주 특례시 지정 대비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연구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청주시 역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이순희 연구소장을 비롯해 김현숙·안종태·유응모·유옥현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청주시 복지정책과 김수정 주무관, 충청북도공무관리체육관 박정연 부장,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염경수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관했다.

본지는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특례시 시대를 대비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과제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급 행정권한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방안을 논



■ 발제자 안종태 연구위원

발제를 맡은 안종태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이 단순한 행정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체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례시 제도의 개념과 청주시의 지정 가능성, 지정 이후 예상되는 복지환경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역할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안 연구위원은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70~80만 명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구 약 88만 명인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는 광역시처럼 독립된 행정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권한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이라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청주시도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례시 지정이 복지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될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참여체계 구축”



■ 김현숙 연구위원

김현숙 연구위원은 "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능별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어려움과 공동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책위원회와 의정·시정 모니터링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 복지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주지역 대학 및 연구자들과 협력해 지역 복지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등 협의회의 연구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행정 변화 넘어 지역사회복지 체계전환 계기”

“협의회, 지역복지 전략 플랫폼으로 기능 확대”

경우 복지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확충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연구위원은 "청주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도시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직과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며 "특례시 지정은 사회복지 전담조직 확대와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 특례시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활용해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전문성을 갖춘 부시장이나 정책 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전문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확대 등 복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특례시 지정 자체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며 "협의회는 기존의 사업 수행 중심 조직을 넘어 정책기획과 조사연구, 민관협력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 전략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기관 확대 역시 단순한 조직 규모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현장의 대표성과 참여 기반을 넓히는 과정인 만큼, 회원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지원 기능을 강화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의 연구 기능도 보다 현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청주시복지재단이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연구를 담당한다면, 협의회는 현장의 욕구와 문제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조사와 실천 중심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장 기반의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광역협의회는 총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기능을 수행하고,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데이터 구축·현장중심 연구 정책기반 강화”



■ 유옥현 연구위원

유옥현 연구위원은 "좋은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에서 출발한다"며 지역사회 복지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 규모에 맞는 복지 통계와 현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천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재단이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면 협의회는 현장의 요구와 소규모 복지기관의 어려움을 조사·분석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협의회의 차별화된 연구 기능을 강조했다.

연구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특례시 지정 이후 예상되는 복지환경 변화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역할, 민관협력 체계 강화, 정책 제안 기능 확대, 데이터 기반 연구 및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전환을 단순한 행정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 복지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규모에 맞는 협의회 역할과 정책 기능 재정립”



■ 유응모 연구위원

유응모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한다"며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사업체계 역시 함께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 시기마다 사회복지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공약으로 체계화해 제안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협의회의 정책 제안 및 정책관리 기능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기관 확대와 회원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례시 지정 이후 사회서비스업 설립이나 사회복지사업회 조직 확대 등 복지 관련 기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만의 고유 기능과 차별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순희 연구소장

이순희 연구소장은 "오늘 좌담회는 특례시 지정 여부를 넘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참석자들은 지역 내 복지기관·단체·민간자원·시민을 연결하는 지역복지 허브 기능과 복지정보 플랫폼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시정·의정·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허브이자 정책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소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복지광장



양 진 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나는 처음부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입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힘들고 지치며 수없이 퇴사를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 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퇴직을 고민하는 사회복지 근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입사 초기에 들었던 사례가 있다. 한 여성장애인 가정은 이용자와 성인 가족 모두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었고, 20년 동안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매주 방문하여 정리정돈을 도왔지만, 다음 방문 때면 집은 다시 원래

작은 변화가 보여준 사회복지의 가치

상태로 돌아가곤 했다. 이용자가 먼저 정리하자고 말하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방문한 활동가에게 이용자가 먼저 말했다.

“우리 오늘 냉장고 청소할까?”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가정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작은 변화였다. 그 변화가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지원과 관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심어둔 씨앗이 비로소 싹을 틔운 것처럼 말이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뇌병변장애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있었다. 활동가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여 목욕, 화장실 정리, 설거지 등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원했다.

어느 날 이용자가 활동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유를 들어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활동가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습관처럼 치약을 앞으로 밀어두고 갔던 것이다. 평소에는 무심코 했던 행동이었다. 그러나 한 손으로 생활하는 이용자에게는 치약을 앞으로 밀어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용자는 그 치약을 사용하며 활동가의 배려에 큰 고마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활동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에게

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사회복지사로 더 크게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만이 변화는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계획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당장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복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장애인을 직접 만나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든, 지역사회를 지원하든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의 형태는 달라도 그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 물론 사회복지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업무량은 많고 급여는 낮다. 감정노동도 감당해야 한다. 외부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때때로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지금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지 고민을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때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지 의

문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떠올린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변화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변화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다.

힘들고 지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으로 인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고, 보람보다 자칫한 더 크게 다가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으면 한다. 나를 아끼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나로 인해 힘을 얻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사회복지의 가치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실천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칼럼

6월 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이
지역사회의 문화가 되기를



신 해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충북도민에게 장애인학대는 결코 낯선 문제가 아니다. 청주 오창의 한 축사에서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이른바 '만득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장애인학대가 특정 공간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치 속, 우리 주변에서 지속될 수 있는 현실임을 보여 주었다.

6월 22일은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가가 장애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학대 예방주간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장애인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권리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장애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가해자가 보호자나 돌봄 제공자인 경우가 많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장애인학대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학대가 발생한 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상처 받은 존엄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예방의 출발점은 관심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의심될 때, 경제적 착취나 방임의 흔적이 발견될 때 주변의 관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 안전망이 된다. 장애인학대 예방은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은 가정과 학교, 직장, 의

료기관,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대 예방도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행정기관과 복지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교육 · 의료기관, 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더욱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북 역시 이러한 과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와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차별과 배제를 용인하지 않고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다.

장애인학대 예방은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경제적 의존이 크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환경에서는 학대가 발생해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학대 위험은 줄어든다. 장애인의 주거권 · 노동권 · 교육권 · 이동권 보장은 복지정책을 넘어 학대 예방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도 중요하다. 학대 예방 정책은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권리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장애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고 가해자가 보호자나 돌봄 제공자인 경우가 많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장애인학대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학대가 발생한 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상처 받은 존엄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예방의 출발점은 관심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이거나 부당한 대우가 의심될 때, 경제적 착취나 방임의 흔적이 발견될 때 주변의 관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첫 번째 안전망이 된다. 장애인학대 예방은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은 가정과 학교, 직장, 의

현장의 목소리



성 숙 진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친구는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애기 안 해요”

상담실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래 관계도 유지하고 학교생활도 무난히 해내는 듯 보이지만, 상담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혼자일 때도 불안과 공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관계에 신중하다.

혼자가 편한 시대, 왜 더 불안해졌을까

상처받지 않기 위한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한다. 부모세대 때처럼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은 줄어들었다. 누군가와 깊이 가까워지는 일은 그만큼 감정 소모를 동반하기에 차라리 적당한 거리에서 머무는 것이 관계의 책임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정서적으로 기대고, 이해받고, 공감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계를 최소화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경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관계를 줄이면 마음은 편해지는 효과와 나타나지만 이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청소년들은 감정을 이해받거나, 해소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쌓인 감정은 불안과 우울, 무기력 같은 깊은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들을 혼자서 감당하게 된다.

상담 장면에서 호소하는 많은 문제 행동 역시 이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과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모습들로 나타난다.

다. 이러한 모습들은 '삶의 태도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경험이 부족할수록, 감정은 더 불안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싫은 청소년들은 오히려 감정에 더 무감각해지려 한다.

뿐만 아니라, MZ세대의 미디어환경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흔든다. 온라인 공간에서 접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늘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오프라인에서 현실적인 관계는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에서의 타인의 모습을 기준으로 자신과 비교하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청소년들은 점점 더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대인관계의 질은 낮아지고, 비교는 심해지는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혼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혼자서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 경험'을 만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노력과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공간.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언제든 다시 와도 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의 장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지도하거나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하며, 존재를 인정해주는 안전한 어른이 늘어난 때 청소년들의 관계 경험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서적으로 이해받고 기쁠 수 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어른과 맺는 안정적인 연결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청소년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거리감을 존중하는 태도로 천천히 연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청소년들의 속도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비로소 청소년들이 다시 관계 속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관계를 원한다. 다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안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할 뿐이다. 우리가 그 거리를 이해하고 지켜줄 때, 청소년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연결이,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는 시작이 된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
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 다문화가족 ·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분야

채권 · 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 · 임금, 개인회생 · 파산
이혼 · 친권 · 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지인에게 몇 달전 사기를 당하여 1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지인에 대한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인이 아무리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의 금전적 손해가 전보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사기죄의 범인인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비용, 노력이

형사배상명령제도

많이 들게 됩니다. 즉 가해자의 사기범행에 대한 증거를 본인이 직접 확보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형사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 내용을 심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정보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은

그 정보를 이용하면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동정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제재를 원하는 사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후원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협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회차별 40명 이내
- 주요내용: 주택체험관, 유디체험관 및 휠체어 체험관 견학*무상교육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공간 체험
-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 적용 일상 용품을 이해
-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행 체험(불규칙 바닥, 경사코스 등)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https://www.043w.or.kr/www/index.do

[HD현대1%나눔재단, 제4회 HD 현대아나상 수상자 후보 추천 요청]

- 추천기간: ~2026. 7. 10.(금) 15:00
- 시상내역: HD현대아나상(1인 또는 단체, 2억 원), HD현대1%나눔상(1인 또는 단체, 1억 원)
- 자격요건: 후보자(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개인(관련 공적 기간 5년 이상), 단체(공적 기간 5년 이상, 정회원 10인 이상), 추천인(지자체, 교육시설, 각종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장 또는 현직 직원(본인 추천 가능), HD현대아나상 역대 수상자, HD현대 임직원)
- ※ 각 추천인은 1단체(명)의 후보자만 추천 가능
- 추천방법: 온라인 제출
- 참고: https://1percent.or.kr/00_main/main.html
- 문의: 대표전화(02-500-4800)

[밀알복지재단, 2026년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사업 '산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6. 7. 10.(금)
- 지원대상: 중증장애아동(신장 115cm, 체중 25kg 이하)
- 지원내용: 장애아동 맞춤형 유모차 500대
- *하단 대형 적재공간 활용 가능, 병원치료, 외출, 차량 이동에 최적화, 링거 거치 모듈+화장형 장바구니 기능 탑재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www.miral.org

■ 문의: 국내사업실(02-6411-3622)

[청주정신건강센터, 녹색자금 순체험·교육 지원사업 운영 안내]

- 사업내용: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속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금 순체험·교육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26년 2월 말 ~ 10월
- 운영형태: 당일형·숙박형 순체험 프로그램
- 사업대상: 청주 지역 정신장애인 및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 서비스 내용
- 당일형 5회, 숙박형 4회 총 9회기 운영
- 숲길 걷기, 명상, 감정 나눔, 자연 기반 체험 활동 등
- 신청문의: 청주정신건강센터(043-285-0102)
- 접수방법: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cjmental01@naver.com) 접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T. 043-716-2168~9)

[홀트아동복지회, 2026년 취약계층 통합위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상시
- 사업대상: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고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 긴급 통합 돌봄이 필요한 아동·가정, 위기임산부 및 영아 또는 위기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가구
- 지원내용: 한 가정당 최대 500만원 지원(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심리치료비, 교육비, 기타맞춤형 물품지원)
- 신청방법: 유선연락(개인신청) 또는 이메일 발송(기관신청)
- 참고: https://love.holt.or.kr
- 문의: 충청지부(042-586-1983~4)

[함께하는사람발,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 지원내용: 희망이음 결연지원, 희망가정 키움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화상 및 희귀난치지원, 온라인 모금캠페인 지원
- 신청주체: 위기가정 개입 및 사례관리 기관(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www.withgo.or.kr/index.do
- 문의: 대표전화(02-2612-4400)

[열매나눔재단,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위기사황에 놓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정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중복신청 가능)
- 신청주체: 위기가정 아동 사례관리가 가능한 지역 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merryyear.org
- 문의: 임팩트사업 1팀(02-2665-0046)

[밀알복지재단, 뇌전증환자 로봇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지정병원에서 의료로봇 수술을 받는 중위소득 140% 이하 저소득 뇌전증 환자(전 연령)
- 지원내용: 비급여 뇌전증 로봇 보조검사·수술 본인부담금(700만원 한도)
- ※수술 일자가 확정된 후 1개월 전 신청 권장
- ※이미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경우 소급지원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참고: https://merryyear.org
- 문의: 뇌전증 지원사업 담당자(02-6411-3628)

[하트하트재단, 2026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공통) 의료·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저소득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내 아동·청소년 가정 / (의료비) 만 18세 이하 긴급수술 필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
- 지원내용: 의료비-연간 최대 200만원, 생계비-연간 최대 120만원
- 사업기간: 2026. 1. 1.~11. 30.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및 이메일 접수(사회복지기관 또는 병원 등을 통해 신청)
- 참고: www.heart-heart.org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34-0840

▶ **어르신 말벗,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25-5030

▶ **장애인디지털발리자 환경정리**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75-7411

▶ **경로식당 업무 보조**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883-2470

▶ **바리스타 재능기부**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88-1428

▶ **학대피해아동 멘토링**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731-3685

▶ **이동학습 및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7.31.
전화번호: 043-266-476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엔코드,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하루 선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 소속 '엔코드'는 공연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전하고 있다.

봉사단은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청주시에 소재한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공연봉사와 식사보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자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노래와 춤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

에게 웃음과 활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보조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엔코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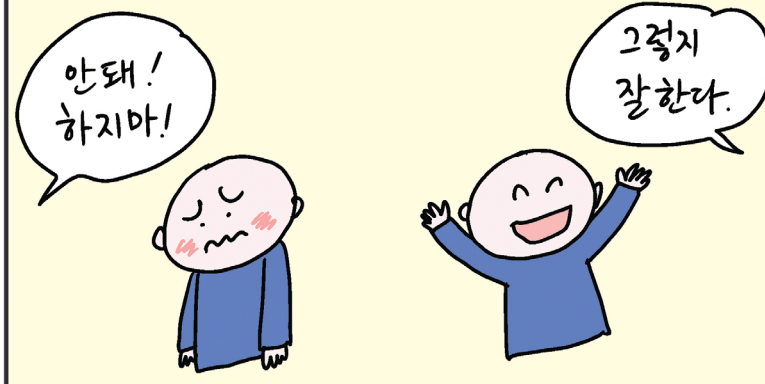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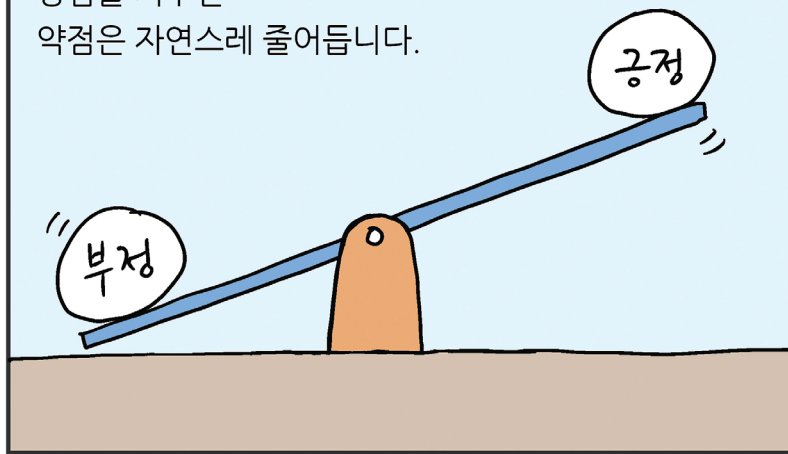
강점관점

이창신 www.bokmani.com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시소와 같아서



강점을 키우면
약점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부정적인 걸 없애려 말고 긍정적인 걸 늘립시다.

